무소유와 청빈…자신을 비우는 일

〈불교〉 〈기독교〉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와 공동학술대회 열어

"기독교의 청빈서원과 불교의 무소유 정신은 개인의 신앙을 사회에 전환해 일반 대중들에게 종교적 이상향을 제시하는데 그 유사성이 있다"

물질 만능주의의 발달로 모범적인 종교인 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독교의 청빈사상과 불교의 무소유정신을 비교한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와 함께 서울 법련사에서 제6회 '기독자-불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믿음과 수행, 그 접점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최현민 종교대화씨튼연구원 원장은 기독교의 청빈사상과 불교의 무소유정신을 비교했다.

최현민 원장은 먼저 "수도자들의 청빈서원은 예수의 가난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삶은 철저하게 가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은 "예수는 당신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청빈을 요구했는데 특히 제자들을 파견할 때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예수의 가난관을 불교의 무소유와 비교해 "예수는 제자들에게는 철저한 가난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물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도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교의 무소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러한 가난관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福音)을 전하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유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런 규칙은 수도자 스스로는 자유를,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평등한 삶의 수준을 제공해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얼핏 생각하면 무소유 정신은 깨달음을 지향하는데 반해, 청빈서원은 하느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양 종교의 궁극적인 세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불교의 무소유 정신도 그 지향점이 이타행(利他行)으로 불국토(佛國土)를 만드는데 있는 점을 본다면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이 청빈서원을 통한 궁극적세계인 하느님 나라와도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작금의 종교계 위기가 물질문명의 발달이란 외적인 문제에만 있지 않고 수도자 자신이 스스로 그 의미를 살려내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끝으로 " 육조 혜능선사가 말한 '생각에서 생각을 여읜다'는 무념(無念)과 예수께서 가르친 '네가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기반에서 참된 베품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무소유 정신과 그리스도교의 청빈 정신은 상통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세계에 알린 주역, 구산 스님 학술적 조명

보조사상연구원, 11월 19일 서울 법련사에서 학술대회 개최

1970년대 미주 순방과 해외 포교당 건립, 송광사에 최초 국제선원 개원 등 해외 포교의 선구자, 구산 스님(九山垂蓮, 1910~1983).

'근대 간화선의 중흥자'이며 '보조선의 계승자'로 일컬어지는 구산 스님을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린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스님)은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구산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제22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이 '구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가 '구산 선사의 상당법어집 〈구산선문〉 분석 시론',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구산수련의 선사상 - 보조선의 계승과 관련하여', 한동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가 '1950년대 구산수련의 종단 정화운동', 문경순 전북대 박사가 '구산수련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 세계화' 등을 발표한다.

총평에는 강건기 전북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토론자로 동방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 한상길 동국대 박사 등이 참여한다.

이중 구산 스님을 주제로 한 1호 박사인 문경순 박사는 구산 스님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 세계화를 심도깊게 조명한다.

문 박사는 구산 스님의 수행자적 면모뿐만 아니라 불교 대중화와 세계화의 역량에 대해 살핀다.

특히 구산 스님의 제2 정혜결사운동, 대중수련회 개최, 불일회 결성, 칠바라밀 주창 등 근대 불교혁신운동을 통해 현재 불교계에 시사하는 승가상을 제시한다.

구산 스님은 육바라밀에 봉사를 포함한 칠바라밀을 제시하는 등 불교 포교와 대중교화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 스님은 "스님의 45년 간 수도생활은 일명 '일수좌'를 들을 만큼 잠시도 쉴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구산 스님은 조계종 초대종정이신 효봉 스님의 뒤를 이어 현대 한국불교의 초석을 다진 은 그 수행과 행화는 현 시대 수행자의 사표"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구산 스님은…



구산 스님(사진)은 1909년 전북에서 태어나 1935년 27세 때 병을 얻어 신음하던 중 진주의 한 거사에게 "본래 청정한 자성(自性)자리인데 어디에 병이 붙겠는가?"는 말을 듣고 발심해 지리산 영원사에서 백일 천수기도로 육신의 병을 낫고, 불법에 눈을 뜬다.

29세 때 출가해 30세가 되던 4월 효봉 스님을 은사로 송광사 삼일암에서 5계를 받고 1939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해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그 이후 통도사 백련암과 청암사 수도암 정각토굴 등에서 선수행의 길을 걸었다.

1946년 효봉 스님을 방장으로 가야총림이 개설돼 총림에서 도감 소임을 봤다. 46세인 1954년 교단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 500자 혈서로 정화 결의의 기치를 세웠으며 1955년 초대 전남 종무원장 취임, 57년 광양 상백운암을 중건, 1962년 대구 동화사 주지에 취임했다. 1969년 송광사 조계총림 초대 방장으로 추대됐으며 총림 후원 단체인 불일회(佛日會)를 창립해 총재 겸 총회장에 취임했다.

그 이후 불교 세계화와 대중화에 적극 나서는데 1972년 운허 스님과 함께 북미 카멜 삼보사 개원식에 참석해 미주 순방을 실시했으며 1973년 미국인 제자 현조 스님과 함께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원했다. 75년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7바라밀〉을 펴냈으며 76년 가을 영문 〈Nine Mountains〉를 출간한다.

79년 제2차 미주순방길에서 LA에 고려사를 개원했으며 82년 제3차 미주순방 겸 유럽 순방에서 스위스 제네바에 불승사를 개원했고 미국 카멜에 대각사를 개원했다. **노덕현 기자**

성주사 목조삼불좌상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11월 1일 법인사 감로왕도 등 불교문화재 9건 지정 예고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9건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1월 1일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昌原 聖住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을 비롯한 불교문화재 9건을 보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조각승으로 유명한 녹원 스님의 작품으로 수작으로 꼽힌다. 17세기 중엽 조각사 연구의 기준이 된다는 평가다.

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昌原 聖住寺 甘露王圖)'는 도상적 특이성과 더불어 직지사 구장본의 행방이 확실하지 않은 현재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대좌(昌寧 觀龍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臺座)'는 17세기 전반의 불교조각으로 불상양식이나 조각승들의 사승(師承)관계와 양식의 계보를 잘 알려준다는 점이 인정받았다.

'함양 법인사 감로왕도(咸陽 法印寺 甘露王圖)'는 현존 감로왕도 가운데 제작시기가 비교적 이르고, 당시의 화풍을 잘 전해주고 있다. '부산 국청사 청동북(釜山 國淸寺 靑銅金鼓)'은 후면 양각법이 조선 금고의 주조방법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양산 내원사 청동북(梁山 內院寺 靑銅金鼓)'은 뒷면이 넓게 뚫려 공명구가 형성된 일반적인 형식의 반자형 북으로 고려 금고 연구의 자료가 된다. '양산 통도사 청동은입사향완(梁山 通度寺 靑銅銀入絲香)'은 고려후기인 14세기 중엽에서 후반 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3(大方廣佛華嚴經晋本 卷五十三)'은 고려시대 사간본으로서 사찰판본인 점에서 가치가 높다.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은 간행기록과 함께 시주자 명단과 연판(鍊板) 및 각수(刻手)가 명시돼 조선전기 불서판본의 간행과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평가다.

한편 문화재청은 9월 5일 지정예고했던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 · 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보물 제1723호)과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보물 제1726호)을 각각 보물로 지정했다. **노덕현 기자**



보물 지정 예고된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제3회 원효학술상 공모…외국인도 가능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 양성을 위한 원효학술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올해 제3회를 맞는 원효학술상은 내국인에 한정됐던 공모대상을 재외국인과 외국인까지로 확대했다.

공모는 교수(전임강사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와 박사과정 후 비전임교수, 석 ·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발표된 저술 · 논문에 한해 1인 1편 응모 가능하다. 단, 재외국인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한다.

선정자에게는 교수 저술상 1000만원 혹은 논문상 700만원, 박사과정 후 연구자 500만원, 석 · 박사과정생 금상 300만원, 은상 250만원, 동상 200만원이 시상된다. 접수기간은 2012년 1월 2일~2월 29일까지이다. 선정은 4월 중 이뤄진다. (02)719-2606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 · 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깨달음의 아이콘

달마에 빠지다

달마를 그린 선화 100여 점을 다루는 이 책은 일반인들도 쉽고 친근하게 달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 깨달음의 징표로 상징되는 달마도를 통해 달마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이다. 사명 대사의 달마도, 윤두서의 달마도, 만봉 스님의 달마도 등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달마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신비와 베일에 둘러싸인 달마사상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

김나미/A5/244쪽/16,000원/렛잇비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레시피

첩첩산중 울진 불영사, 그곳에는 천 년 세월 전해 오는 맛의 비법이 있다!
이 책에는 재료 하나하나의 특징은 물론이고 불영사에서 실제 일어나는 재미있는 절집 이야기와 음식 이야기가 맛깔스럽게 담겨 있다.

일운/B5/265쪽/18,000원/담앤북스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이 책에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과적 종자를 소멸해야 하기에 한 생각 일어날 때 습과적 종자를 소멸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여 자기의 근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은 깨달음에 안주하여 미혹하게 과거의 습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미세한 과거 종자를 정화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제시하였다.

혜원/A5/309쪽/12,000원/유마북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